

1) 데칼로그 (2) 각인 (출애굽기 20:1~3)

① 설교요약본

a.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첫 계명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의 신관은 다신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서로 다른 능력과 역할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하며 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홀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대 근동의 신관이 우리의 삶에 더 적합해보이는데,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이 이스라엘의 삶에 개입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b. 우상과 우상 숭배

말씀에서 볼 수 있듯, 고대 이스라엘의 신관은 “유일신관”은 아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최고 유일신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같은 표현도 이런 맥락에서 불리게 된 호칭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가짜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다른 신들은 사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너희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말씀하십니다. 태양은 우리의 삶에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겼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상은 내 삶 가운데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 마음이 향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c. 우상숭배는 왜 위험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을 만들어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나쁘고 위험한 것인가요? 우상숭배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위험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닮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의 종교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사냥의 신을 섬기는 이는 수렵에 모든 인생을 바쳤고, 술과 향락의 신을 섬기는 이는 평생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을 추종하는 이들은 돈과 권력의 악취가 따라다니고, 이성과 과학을 숭배하는 이들이 통치한 시대에는 오히려 더 끔찍한 전쟁과 집단학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근현대역사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 우상 숭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결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신분의 자유는 누릴 수 있을지라도, 생각과 삶의 방식에 자유를 선사해주지 못합니다.

d. 누구를 닮을 것인가?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가며 무언가를 잘하는 이들을 보면 그를 닮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하곤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인간적 성향에 대해 선포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닮을 대상이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 20:2)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고대의 신들은 다들 높은 위치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며 그들에게 섬김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노예들의 신,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들을 위해 권세있는 자를 무너뜨리는 존재이심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정 반대되는 신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콘라드 로렌츠는 “각인”에 대한 실험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에서 갓 부화한 거위가 처음 보는 생명체를 어미로 여기고 평생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 “각인”이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거위가 처음 본 생명체를 따르듯, 우리도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영적 본능이 각인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바로 데칼로그 제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의 인생은 누구를 닮기 원하느냐? 무엇을 각인하기 원하느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각인되어서 예수의 길을 자신의 걸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